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루벤스/ 바로크미술의 끝판왕

60여년 전, 어린 시절 유화를 처음 배울 때 사용한 유화물감의 제조사 이름이 '루벤스'였다. 열악한 시절 국산 제품이 있었다는 것만도 다행스러웠지만 비교 대상이 없었던 때라 한참 후에 외국산 유화물감의 찰지고 풍성한 색감을 보고서는 국산 제품의 대해 크게 실망을 했던 적도 있었다. 몇 십 년 후, 유럽에 나가 처음 고향의 진품을 보고 그 색감에 놀랐던 기억도 새롭다. 여하튼 유화물감의 질적 수준은 차치하고 제품명을 루벤스라고 지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루벤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루벤스'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화가이며 두 왕에게서 작위를 받은 기사이고 귀족이며 외교관이었다. 일생을 살며 왕족처럼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화가'라는 통념은 그에겐 해당이 안된다. 게다가 여복도 많고 궁핍함을 전혀 모르는 부자이기도 했다. 인간성도 좋아 그를 따르는 제자가 너무 많아 오지 말라고 물리칠 정도였다. 첫번째 사랑했던 처가 죽고 나서 새로 얻은 처는 그 동네 제일 미인이었으며 거의 40세 정도 차이나는 16세의 소녀였고 그녀를 통해 루벤스는 말년에 엄청난 영감을 받기도 했다. 그녀의 관능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그의 많은 작품에 누드 모델로 나오기도 해서 못사람들의 시선을 집중 받기도 했다.



Descent from the Cross 1612-1614 Oil on canvas, Oil on panel, 421 x 311cm Antwerp, Belgium

각설하고 그의 작품을 살펴보자.

정 중앙에 백색 바탕의 천 위로 잿빛의 그리스도의 시신이 내려지고 있다. 바로 아래 진홍색의 옷이 사도 요한, 그리스도의 팔을 잡으려는 청색 옷의 여인이 성모 마리아, 발을 감싸고 있는 여인이 막달레나 마리아, 그리고 그 옆의 여인이 다른 마리아이다. 이렇게 세 마리아가 왼편에 모여 있는 것도 의도적이다. 왼쪽의 두건 쓴 남자는 빌라도에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아리마태아 요셉 그리고 사다리 위에 서있는 남자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이다. 십자가 상단 위에서 천을 입에 물고 있는 남자와 왼편 근육질의 남자는 예수의 다른 제자들로 짐작된다. 하얀 천을 입으로 물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을 부드럽게 아래로 안착시키기 위해 천을 평평하게 당겨서 슬라이딩 쿠션 역할을 하게 만들어 그 위로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을 천천히 내리고 있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백색의 천은 역시 무죄한 예수를 의미하며 동시에 곧 닳칠 부활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 청색의 옷은 성모 마리아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장엄하기까지한 극적 화면 구성과 화려한 색채, 짙은 음영의 표현은 바로크 미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의 애제자 요한이 강한 주황색 옷을 입고 예수의 시신을 받쳐주고 배경에 찬란하게 빛나는 흰 천은 하늘로 솟구치는 듯 하다. 그리스도의 시신이 천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만 오히려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는 듯한 진취적 구도는 부활의 확신까지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리는 이 장면은 모든 종교 화가들 필생의 주제였다.

대개는 이 주제의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는 큰 슬픔에 주체를 못하는 자세로 남에게 부축을 받거나 큰 상심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그림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사건에 한 축을 능동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루벤스의 해석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마리아 부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각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제단화는 바로크미술의 완성자이며 가톨릭 신앙인 루벤스가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여 가톨릭 반종교개혁에 앞장서서 17세기 초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후배 렘브란트를 비롯해 많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지난 번 컬럼에 등장했던 선배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지오의 심대한 영향을 받은 루벤스는 모든 작품에서 그들에 대한 경의를 숨기지 않는다. 소위 영화 비평 용어로 존경하는 위대한 작가에 대한 '오마주'이다.

이 작품에서 등장 인물들의 모든 동작은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좀 과장된 듯한 몸짓이기도 하다. 그 역동적 생동감은 인본주의 르네상스의 기원을 둔다. 더 나아가면 그 원류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의 살아있는 듯한 활동성이랄 수도 있다. 뜬금없는 예일 수도 있지만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다. 백스윙의 허리 돌림이나 피니시 동작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텐션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통 느낄 수 없다. 비기너 골퍼가 처음 연습을 하고 나서 등판이 몹시 아픈 경험을 많이 한다.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유별난 포즈가 나오는 이유도 종목별로 특화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들의 활동적 포즈를 보면 금새 파악이 된다. [다음 편으로 계속]

글/김용배 안드레아

연중
제 23주일
2023년
09월 1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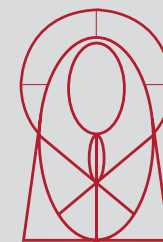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태오 18,15>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33,7-9
화답송 시편 63(62),2,3-4,5-6,8-9(© 2c 참조)



후렴·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13,8-10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마태오18,15-20

○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성가번호 입당 21 봉헌 217, 220 성체 178, 157 파견 47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상식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성체를 모시려면 가톨릭 신자여야 합니다. 양심에 중죄가 있는 사람은 먼저 고해성사를 해야 하며, 제대에 가까이 오기 전에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체를 받기 전 최소한 한 시간의 금식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경외의 표시는 단정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풍만히 받습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이택면(예로니모) 신부님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심정일 - 박 안나
- Elaine Abels - 클라라 토레스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 - 성낙순(미카엘라)
- 방대권, 이복녀, 방도밍고, 임베드로, 김 마리아 - 임 안나
- 양순조, 조고만 - 양 그레고리오
- 이동현(요셉) - 가족
- 조경숙(Debbie) - 최 레지나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하건철(안토니오), 양 그레고리오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하건철(안토니오), 양 그레고리오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이 마이클 - 오경선(원선시오)
- 한지혜(크리스티나) - 김 아가다, 백용숙(카타리나), 최현지(안토니아), 전옥주(글라라), 렛거스 구역
- 이종민(예비자), 김진희(아우렐리아), 이예원(김버리테오도라) 가정 - 성낙순(미카엘라)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양우성 - 이막동(아네스)
- 심규학, 신혜련의 성가정 - 최 레지나
- 이정옥(지타) - 채미영(데레사)
- 이금주(베드로) - 최현지(안토니아)
- 오현주(요한) 시종직 준비를 위하여 - 사목회, 채희백(바오로)
- 골프대회 참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 오용운(토마스 아퀴나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3명)..... \$1,187
 - 2차헌금 (유틸리티).....\$393
 - 교무금.....\$3,480
- | | | |
|-----------|-------------|-----------|
| 곽신규(7-8) | 채희백(9-10) | 박병태(9) |
| 김삼식(9-10) | 이용문(9) | 손영수(7-12) |
| 임영자(9-10) | 안을봉(4-8) | 백상현(9) |
| 하중(9) | 박락준(9) | 김영필(9-10) |
| 유병기(7-9) | 곽유리안나(9-10) | |

🌸 2차 헌금

• 9월 10일: Peter's Pence (베드로 성금)은 교황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교황님께 전하는 헌금입니다.

🌸 친교 봉사 일정

- 9/10 먼로
- 10/15사우스브런스윅
- 11/19썸머셋
-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근무시간 변경

• 9월 19일부터 사무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변경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 9월 24일(주일)은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각자의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반 안내

• 9월부터 예비자 교리를 시작합니다. 예비자 교리에 관심있는 분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문의: 선교분과장 이서형(요안나))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소회의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 에디슨 구역모임(구역장: 성순영 라파엘라)

• 일시 및 장소: 9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노스에디슨 구역모임(구역장: 서경희 피아)

• 일시 및 장소: 9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야외미사

- 일시: 9월17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Donaldson Park Grove 1, Highland park
- 미사 후 점심식사, 체육대회, 라플 및 경품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 Parish Picnic (본당의 날 행사)

- 일시 : 10월 1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 장소 : 성당 뒷편 주차장
- 내용 : 오전 10시 한/미 공동체 합동 미사
오전 11시 음식 나눔 및 친교
오후 12시 30분 반려동물 축복식 및 아이들 놀이 행사
- 본당의 날 행사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레지오 마리에 야외행사

- 일시: 10월 3일(화) 12시
- 장소: 성 요셉 성지 (St. Joseph Shrine), Stirling, NJ
- 대상: 레지오 활동단원 및 협조단원
- 준비물: 매일미사책, 목주, 뗏세라 (점심 제공)

🌸 오현주(요한) 형제님의 시종직 수여 미사가 9월 16일(토) 오후 5시 Sacred Heart Church, Manville 에서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국 천주교회는 9월 20일(수)을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로 지냅니다. 우리 조상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쫙우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3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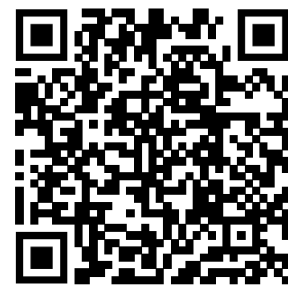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물겠다.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3,8-10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복음18,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SCAN ME: 가스펠 톤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테오) |
| 곽 율리안나 | 방진숙(데레사) |
| 정수지(아네스) | 이금주(베드로) |
| 송희수(글라라) | |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